

요 약

제 목 : 알렌선교사와 윤치호

중서서원(中西書院, Anglo-China College)은 1881년 미국 남감리회 소속의 알렌(林樂知, Young J. Allen, 1836-1907) 선교사가 상해에 건립한 교회학교입니다. 비록 중서서원은 선교사가 세운 교회학교이지만 학교의 건립 목적이나 운영에 있어 다른 교회학교와는 달리 독특한 특징을 구비하고 있었다. 첫째, 일반 교회학교들은 그 학교 설립의 목적이 전도와 목회자를 양육하는데 있었지만, 중서서원은 동서의 지식을 겸양한 중국인 인재를 배양하는데 있었다. 둘째, 일반 교회학교는 대부분 선교사들과 교인들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중서서원의 교직원중에는 중국인들도 많았다. 셋째, 일반 교회학교의 재정이 대부분 선교단체의 후원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중서서원은 감리회의 후원 이외에 이홍장등 중국인 관료들의 헌금도 적지않아 경비가 늘 충족한 상태였다. 넷째, 일반 교회학교는 학생들의 수가 적고,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중서서원의 학생들은 모두 부유층 자녀들이고, 늘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하여야 했다. 다섯째, 일반 교회학교에서는 학과 과정이 대부분 종교 위주로 편성되었지만, 중서서원에서는 종교와 관계된 학과를 편성하지도 않고, 학생들의 예배도 필수적이 아니고 자유스럽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서서원은 교회학교임에 틀림없지만, 그 취지, 커리큘럼, 교사, 경비와 운영등 다방면에 걸쳐 일반 교회학교와 매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학자들은 이것이 창립자 알렌선교사의 “사회복음”, “상층에서 하층으로” 그리고 “학문을 이용한 선교”라는 선교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윤치호씨는 구한말 양반집안의 사대부 계층 출신의 지식분자였다. 그의 일생은 한말의 정치풍파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해야 했다. 그는 구한말에 보기도물게 일본의 동인사, 상해의 중서서원, 그리고 미국의 밴더빌트(Vanderbilt)와 에모리(Emory College)대학등 3개 국가에서 유학하고 현대식 교육을 받은 지식분자였다. 또한 그는 구한말에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와 불어등 5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특수한 인재였을 뿐 아니라 상해의 중서서원에 유학하면서 알렌선교사와 다른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귀의하여,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남감리회신도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면서 학부의 협판등 요직에 활약하면서 한국의 현대화와 기독교 선교에 적극 참여한 구한말 기독교 엘리트의 정치인이었다.

본인은 그가 이토록 혼란한 구한말에 조국의 현대화와 기독교선교에 혁혁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20세때, 중서서원에서 유학하면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곳에서 알렌선교사와 다른 선교사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총애속에서 기독교에 귀의하였으며, 또한 영어 실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주선으로 미국까지 유학할 수 있었으니, 알렌선교사는 윤치호씨의 생명의 은인일 뿐 아니라, 한국인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렌선교사와 윤치호 관계를 윤치호 일기와 만국공보, 그리고 그들이 왕래한 서신들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토론하면서, 임락지선교사의 선교정책을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